

보도자료

(농림부)

- 제공일 : 2007. 2. 28.
- 제공자 : 농림부 가축방역과
- 과 장 : 김 창 섭
- 사무관 : 조 옥 현
- 전 화 : 500-1938

이 자료는 2007년 3월 1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3.1일부터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추진키로

《 보도요지 》

- ◇ 구제역 발생 위험성이 높은 3.1~5.31까지를 “특별 대책기간”으로 정해 강도 높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활동 추진
- ◇ 병원체 유입경로를 원천 차단 : 국경 검역조치
 - 중국 등 위험국산 건초는 2회(선적·하역) 소독·검사후 반입
 - 모든 해외 여행객은 입국장의 발판소독조(405개)를 통해 신발 소독
 - 휴대 육류는 현장 검역관(90명)과 탐지견(23두)을 배치, 검색 강화
 - 농장 고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교육 및 소독 관리
- ◇ 농장 발생 예방 및 발생시 확산 방지 : 국내 방역조치
 - 매주 수요일을 “일제소독 및 예찰의 날”로 지정, 소독·예찰을 정례화 - 4,000개의 공동방제단, 예찰요원 2,598명 운용, 170억원 투입
 - 전국 가축방역기관에 상황실 및 질병 신고 전용전화(1588-4060) 운영
 - 시·군별 가상 방역훈련 등 실시, 발생시 SOP에 의한 초동 대처
- ◇ 농가 교육 홍보 및 경각심 고취
 - 특별대책 시작과 동시, 관계기관·단체별로 교육·홍보활동
 - “국가 위기대응 매뉴얼”에 따른 『관심 정보』 발령('07.3.1)

□ 농림부는 악성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유입 가능성이 높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“특별 방역기간”으로 설정, 모든 방역 역량을 동원하여 『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』을 추진키로 하었다고 2.28일 밝혔다.

○ 구제역은 금년들어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·베트남에서 확산 추세에 있고 인적·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봄철에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.(발생국가수 : '05년 37개국, '06년 16개국)

※ 구제역은 소·돼지·염소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발생시 농가 피해는 물론 국가간 동물·축산물의 교역이 전면 제한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시 되는 전염병임

※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과 2002년도에 발생되어 4,500억원의 직접 손실을 입은 바 있고, 대만은 '96년부터 '00년까지 발생 5년간 총 41조원, 영국은 '01년 발생해서 21조원의 피해를 입었음

□ 이번 대책은 구제역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국경 검역 조치, 농장 발생을 막기 위한 소독·예찰활동 등 국내 방역 조치, 그리고 구제역이 발생될 경우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초등 방역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.

○ 특히 '02.9월 구제역 청정국 인증이후 수년간 국내에서 구제역 청정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지자체와 농가에서 방역의식과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어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·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.

※ “국가 위기대응 매뉴얼”에 따른 『관심 경보』를 발령('07.3.1), 중앙부처·관계기관의 공조체계 구축 및 대국민 경각심 고취

□ 한편, 농림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소독·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,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(특히 축산농가)들은 특별 대책기간중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이나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, 입국시 불법 육류를 가지고 들어 오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※ 붙임 : '07년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계획

'07년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계획

I | 발생동향 및 여건

- 국내 : '00년(15건)·'02년(16건) 발생이후 현재까지 청정 유지
 - 발생원인(추정) : ('00년) 수입건초·여행객, ('02년) : 외국인 근로자
- 외국 : '05년 37개국 발생, 발생 국가수는 감소 추세
 - 금년 발생 : 중국(1월) - 감숙성, 베트남(2월) - 9개지역 확산 추세
 - ※ 발생국가 : ('01년) 65개국 → ('02) 59 → ('03) 51 → ('05) 37
- 중국·베트남의 구제역 확산 및 외국과의 인적·물적 교류 증가
 - 외국인 입국 : ('05년) 6,023천명 → ('06년) 6,155천명(2.2% 증)
 - 아시아 지역('06년) : 4,607천명(중국 897, 러시아 145, 베트남 46 등)
 - ※ 내국인 해외여행('06년) : 11,610천명(전년비 15% 증) - 중국 3,560천명(5% 증)

II | 평가 및 문제점

잘된 점 : 국내 비발생 유지 및 중앙단위 대응체계 가동

- 지속적인 방역대책 추진을 통해 '02.6월이후 국내 비발생 유지
- 지난해 최초로 관계부처 합동(18개기관)으로 “국가 위기 대응 매뉴얼”에 따른 통합연습 실시, 부처간 역할분담 및 공조체계 확립

미흡한 점 : 긴장감 저하 및 휴대 축산물 반입 증가 등

- 수년간 국내 비발생에 따른 농가 및 방역 관계자의 긴장감 저하
- 신규 해외 여행자를 중심으로 휴대축산물 반입이 계속 증가
-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증가('05년 : 719개소 1,623명 → '06년 : 791/1,789) 및 불법 체류 근로자에 대한 관리 곤란

Ⅲ

‘07년 추진계획

- ◇ 적절한 긴장감 유지를 위한 교육·홍보 등 다양한 대책 추진
- ◇ 예년과 같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3~5월까지 「특별방역」, 그 이외의 기간은 「평시방역」을 추진, 비발생 계속 유지

1 농가 방역의식 제고 조치

① 특별대책 시작 전·후, 농가 교육·홍보활동 강화<보완>

-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특별대책 시작 전·후, 집중 교육 홍보

② “국가 위기 대응 매뉴얼”에 따른 “관심 경보” 발령<신규>

- 발령시기 : ‘07.3.1부터(종료 : 특별대책기간 종료시까지)

③ 구제역 예방 결의대회 및 소집교육 실시<신규>

- 3월 둘째주, 시도·농협·한우·낙농·양돈협회별 관계자 소집 실시

2 국경 검역조치

④ 병원체의 유입 경로별 차단검역을 지속 추진<계승>

- 수입 건초중 중국 등 위험국산은 2회 소독(수출국, 국내) 및 정밀 검사후 반입 → 분변물 검사전용 탐지견 2두 운영
- 입국장 발판소독조(215개소, 405개)를 통해 모든 입국자 신발 소독
- 휴대 축산물은 위험국 운항노선(13개국, 37개노선)을 집중 검색
 - 현장 검역관(평시 : 73명 → 특별기간 : 90명) 및 탐지견 23두 배치
 - 지방 공·항만 탐지견 투입 확대 : (‘06) 3개소 → (‘07) 6개소
- 외국인 농업연수생은 농협과 협조, 검역원에서 입국시 교육 실시
 -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의 취업 교육시 가축방역 교육(1시간)

5]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검역 교육·홍보<계승>

- 입국자 : 안내방송, 입국장 PDP, 재외공관의 비자발급시 검역안내서 등
- 출국자 : 전광판, 포스터, 현수막, 발권창구의 검역안내서, 캠페인 등
- 특별대책기간 시작과 동시에 캠페인 행사를 집중 실시
- 외국여행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역 홍보문안 게재
- 단체여행·축산행사에 참석하는 축산농가는 출국전 교육 실시

6] 해외 발생동향 정보수집 및 일일 보고체계 유지<계승>

- 검역원의 해외동향 정보수집팀, 해외 자문관(9개국, 11명) 활용,

7] 세관·해경·공항 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유지<계승>

※ 검역원은 세부 과제별 담당자를 지정, 상황 점검(특별 - 월 1회, 평시 - 분기1회)

3 | 국내 방역조치

8] 『일제소독·예찰의 날(수요일)』, 소독·예찰을 정례화<계승>

- 공동방제단(4,000개반)을 동원(연 20회),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
- 예찰요원(2,598명)을 통해 요원별 주1회(평시 월1회) 5호이상 예찰
- 농장·도축장·종돈장에서 채혈, 혈청검사 97천건 실시

9] 농장·축산시설의 소독실태 단속 및 위반업체 처벌<계승>

- 『일제소독의날』, 소독실태 점검 : 특별 - 월 1회, 평시 - 분기 1회
- 검역원, 축산연구소 : 취약 시·군 30개소, 시·도 : 관할 시군 점검

10]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 현지 종돈장 경영자 관리 강화<계승>

-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·연수생 사후 관리 : 검역원, 지자체
- 지자체는 고용 농장을 방문 지도 : 특별 - 월1회, 평시 - 분기 1회
- 외국 현지 양돈장 경영자·불법 체류자 사후관리 : 양돈협회

4 초동 방역태세 확립

11 특별대책기간중 상황실 운영 및 비상 연락체계 유지<계승>

- 상황실 운영 : 3.1~5.31(3개월) - 평일 20:00까지, 휴일 : 10:00~17:00
 - 대상 기관 : 농림부, 검역원, 시·도, 시·군, 가축위생시험소(본소)
 - ※ 검역원은 긴급 방역반(3개반)을 편성·운영, 신고시 신속한 출동체계 유지
- 소속기관 직원의 비상 연락망을 점검, 유사시 동원체계 확립

12 시·군별 “가축방역협의회”를 개최, 방역체계 점검<계승>

- 3월초 “지역 가축방역협의회”를 개최, 대책 설명 및 역할분담
- “지역 가축방역협의회” 개최를 정례화 : 특별 - 월1회, 평시-분기1회

13 구제역 도상 훈련 및 평가 실시, 초동 대응능력 배양<보강>

- 농림부에서 도별 1개 시·군을 무작위 선정, 도상 훈련 실시 : 3~4월중
 - 의심축 신고, 발생인, 살처분·이동제한, 예방접종, 수매 등 전 과정 훈련
- 훈련에 참여한 지자체 관계자를 소집, 평가회의 개최 : 5월

5 적극적인 방역활동 유도

14 가축방역 특별포상제를 실시, 우수 기관 포상<계승>

- 우수기관 선정(12월) : 39개소(최우수 12, 우수 13, 장려 14)
- 시상금 : 281백만원(축발기금) - 최우수 10, 우수 7, 장려 5

15 가축방역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기회 부여<계승>

- 6월중(10~12일간), 20여명(공무원 등), 연수 경비는 소속기관 부담

16 공동 방제단장 및 예찰 요원의 사기 진작 지원<계승>